



# 일도2동의 꿈

■ 발행처 : 일도2동주민자치위원회  
■ 발행인 : 김두경 ■ 편집인 : 임일순  
■ 발행일 : 2020년 4월 1일  
■ 편집디자인 : 고려인쇄  
■ (우) 6327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고마로 28(일도2동)  
■ 전화 : (064)728-1529 ■ 팩스 : (064)723-0823

## 春來不似春

- 코로나19에 부쳐 -



김 두 경

일도2동주민자치위원장

胡地無花草(호지무화초)  
春來不似春(춘래불사춘)  
오랑캐 땅에는 꽃과 풀이 없으니  
봄이 와도 봄 같지가 않다

인이 쉽게 제안하는 마스크 유통체계를 국민의 원성은 다 듣고 나서야 바꾸는 무정책의 표상을 만들었습니다.

코로나19의 원산지인 중국에 대한 대처를 잘못하더니 급기야는 자국 내의 종교시설하나 관리하지 못하는 비참한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한국인을 우습게보고 막 대하는 것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국격(國格)과 한국인이라는 자존심(自尊心)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 시구(詩句)는 전한(前漢) 원제(元帝)시대에 궁녀 왕소군(王昭君)을 기리며 당대의 시인(詩人) 동방규(東方朔)가 지은 소군원(昭君怨)중 일부입니다.

왕소군은 양귀비, 서시, 초선과 함께 중국의 4대 절세미인(美人)이었으나, 집안이 빈천하여 화공인 모연수에게 뇌물을 주지 못해, 원제에게 바칠 화첩에 평범한 얼굴에 점 하나를 찍어 버려 후궁으로 선택되지 못하고, 흉노와의 화친정책에 의해 남흉노의 왕인 선우 호한야(呼韓耶)에게 시집가게 된 불운한 여자였다고 합니다.

호한야에게 시집갈 때 말을 타고 비파를 연주하는 모습을 보느라 남쪽으로 가던 기러기들이 날갯짓하는 것을 잊고 땅에 떨어졌다하여 왕소군을 낙안(落雁)의 미인이라 했으며, 가을이 되어 북방의 초목이 시들어도 왕소군 무덤의 풀만은 푸름을 잃지 않아 청초(靑塚)이라 했을 정도의 미인이라 합니다.

그런 미인을 그리워 봄이 와도 봄이 온 것 같지 않다고 한 시인처럼, 계절은 분명 봄이건만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마음과 일상은 전혀 봄이 온 것 같지가 않습니다.

시간, 계절, 관념상 눈에는 분명 봄이 왔건만, 코로나19사태로 인한 박탈감과 우울함으로 우리들의 몸과 마음은 봄이 왔음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SARS-CoV-2감염에 의한 호흡기증후군이라 정의하는 COVID-19는 질병코드:U07.1이며, 제1급감염성 신종감염병증후군이라 합니다.

초기엔 멀리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전염병정도로 쉽게 생각했으나, 사스와 메르스에서 체계적으로 학습한 우리나라의 질병본부의 발 빠르게 준비하고, 철저한 방역체계를 갖추어 코로나19에 잘 대처한다고 모두가 응원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의 조언경시(助言輕視)와 원칙고수의 리더쉽을 지키지 못하고, 정치가 개입되면서 우리의 방역체계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공공의료체계가 세계경제협력기구 10위의 위상을 너무 믿었나 봅니다.

WHO에서 코비드19라 명명했음에도 코로나19로 명명하면서 코로나=코리아라는 등식을 만들더니, 마스크 수백만 장을 지원한다고 떠들더니 정작 자국민에게 지급할 마스크가 없어 새벽부터 너댓 시간씩 줄을 서게 하고, 그나마 구입 못한 국민들의 원성을 듣고서야 배급방식을 며칠 만에 바꾸고, 시골 의료

노동력착취에 기반하는 네트워크자본주의의 촘촘한 연결망을 단숨에 끊어버린 코로나19는 최악의 경제바이러스가 되고 있습니다.

대만과 싱가포르를 초심불변(初審不變)을 지켰고, 남의 불행을 즐기던 나라들은 지옥을 마주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각자도생(各自圖生)하고 있습니다. 지역 간 격리와 나라간 격리가 유행처럼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장 드라마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살이에서 반전(反轉)이라는 극적인 요소는 항상 있는 가 봅니다.

WHO의 팬데믹(pandemic : 세계적 대유행)선언과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장은 이 모든 잘못을 소소한 실수로 치부하고,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은 코로나19에 모범적으로 대처한 훌륭한 나라가 됐습니다.

아시아에서 수십만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되고 고생하고 있을 때, 저 잘난 코쟁이들과 그의 대장(大將)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지금의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강 건너 불구경하던 유럽과 미주가 요즘은 가관(可觀)이 아닙니다.

사재기를 위해 마트를 싸잡아 하고, 감염된 환자를 버려두고 도망가는 간병인을 보면서 우리는 건강하고 복된 나라에 살고 있음을 절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코로나19에 대한 성과는 고위관료의 관료적 타성이나 위정자의 정치적 고려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실사구시(實事求是)를 추구하는 전문가와 늘어나는 질병관리본부장의 흰머리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민간의 노력과 희생(犧牲)으로 얻어진 방역성과를 결코 누구의 자화자찬으로 이용하지 말고, 국민과 전문가에게 돌려야 합니다.

개인위생 수칙준수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동참한 우



## Korea, Wonderland? 참 이상한 나라

리를 멋있어해야 합니다.

어린 아이를 집에 두고 병원으로 달려간 우리의 친구와 누이동생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새우잠을 자면서, 우주복을 입어 땀범벅이 된 그들을 우리는 존경해야 합니다.

나이트 할머니가 손으로 한뼘한뼘 떠 마스크를 만들고, 내가 아닌 급한 사람을 위해 순순히 마스크를 포기하고 기부하는 우리의 이웃이 있음을 고마워해야 합니다.

유투브의 참이상한 나라(Korea, Wonderland?)가 우리임을 우리는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세계가 우리를 추켜세워도 중간 평가를 거부하는 국무총리와 작업현장을 방문하며 근로자를 위로하는 대통령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뒤돌아 봐야할 때인 것 같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입니다만 희망(希望)은 가져야 합니다.

국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기다리지만 말고, 우리 모두가 주변을 둘러보고 함께 갈 길을 생각해야 합니다.

소상인과 자영업자가 힘들어 하고 우리사회의 변방이 힘들어 합니다.

멀어진 사회적 거리를 좁히고 눈을 마주쳐야 합니다. 가슴을 부딪치며 미래를 위한 파이팅을 외쳐야 합니다.

공공의료체계를 보완하고 또 다른 위기에 대비해야 합니다. 위기에 대처하는 컨트롤타워를 정비하고 국민을 다독여야 합니다.

이런 고민만큼은 며칠 후 우리가 대표로 뽑는 국회의원과 여의도와 청와대가 해결해주지 않을까요?

세상이 아름다운 건 사람이 있기 때문이요  
삶이 아름다운 건 친구가 있기 때문이다.  
사랑합니다.

### 지면소개

1면 \_ 春來不似春 - 코로나19에 부쳐 · 김두경 2면 \_ 제주담은 오래 살고 싶으면 제주로 · 양길현 / 기고 사과의 힘 김현경

3면 \_ 탐방\_주민자치위원회 / 2020 상반기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생 모집요강

4면 \_ 제주의 역사·문화유적을 찾아서\_동성(東城)·돌하르방·신선길(III) · 문영택 / 방콕의 시간을 독서로 I THAAD · 우린 너무 몰랐다 · 김두경

5면 \_ 관내초등학교 학생 온라인 학습 모바일 데이터 일부 무료 지원 안내 / 시 상생(相生) · 김용덕 / 건강상식\_귀찮을때 대처법 · 김동근 / 들꽃 · 고재민

6면 \_ 제주소담\_제주하면 떠오르는건윤상훈 / 함께해요! 일도2동\_코로나19 7면 \_ 알림 / 홍보 / 신생아탄생축하\_강다울, 박하담 8면 \_ 알림 / 홍보



## 제주 담론

### 오래 살고 싶으면 제주로

돈 벌이와 관련 제주는 그다지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 내노라 하는 대기업 하나도 없는 데다, 관광객이 1,500만이 넘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70만도 채 안 되는 도내 인구수의 시장으로는 돈 벌기가 쉽지 않을 터이다. 그런데도 지난 몇 년간 매달 평균 1,000명 내외의 이주민이 폭발적으로 제주를 향했다.

물론 제주가 특별히 남다른 기회의 땅이어서가 아니다. 그건 타 지역에 비해 풍광이 좋은 자연환경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땅 값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주 섬이 주는 환상이 겹쳐서 일어난 일시적 열풍이었다.

자연 이외에 제주가 갖는 경쟁력은 무엇일까? 장수의 섬 제주가 앞으로도 지속가능하도록 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마냥 '제주는 장수의 섬'이라는 통계 숫자에만 매달려서는 미래가 없다. 언제 통계치가 바뀔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여기서는 2가지만 좀 더 생각해 보기로 하자.

첫째는, 장수에는 개인적으로는 유전자의 영향이 클 수도 있지만, 동시에 환경적 요인도 만만치 않다고 볼 것이다. 얼핏 생각해 보아도 먹고 잠자는 것은 물론이고 스스로 건강관리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지근 거리에 다양한 산책로 등 운동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게 중요할 것이다. 또한 가능한 한 스트레스를 덜 받도록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문화라든가 지근거리 지인들과 친밀성을 확보해 나가는 다양한 채널과 관계망의 확보, 그리고 현대화된 병원 치료를 쉽게 받을 수 있는 접근성 등의 요인들이 건강장수에 영향을 미칠 터이다. 이 가운데 필자는 1일 생활권의 공동체적 관당문화가 70만 제주도민들에게 노후의 심리적-인간관계적 안정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점에 주목을 하고자 한다.

그런가 하면 요즘이 지천으로 널려 있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어디서든 트래킹이 가능하다. 경제적 여유가 조금만 있으면 타 지방에서는 한 번 나서기가 쉽지 않은 골프도 제주에서는 쉽다. 오희는 물론이고 각종 올레길, 바닷길 걷기가 여러 친목 단체에서 하루 멀다하고 열린다. 영양 먹거리인 싱싱한 채소는 온화한 날씨 덕분에 사시사철 손쉽게 구할 수 있다. 집에서 밥해 먹기가 싫으면 가까운 동네 지인 만나 세상사 나누면서 외식을 하는 것도 일상사

가 되었다. 막걸리 한 잔에 온 세상을 한바탕 들었다 놓았다 하면서 담론을 즐기는 게 제주도민의 하루 일과이다.

이게 다 제주가 공동체적 친목 사회이기에 가능한 것이다. 제주를 찾아온 이주민들에게도 제주의 친목 사회적 흐름에 얼마나 빨리 적응을 잘 하는지가 행복의 열쇠이며 장수로 가는 지름길이 될 터이다. 처음에는 배타적이지만 금방 '우리가 남이가'가 통하는 게 제주사회의 온정성이자 포용력이다. 다만 최근 딱히 이주민 열풍 때문만은 아니지만 제주의 땅 값이 치솟아 제주에서도 빈부의 차이를 눈에 띄도록 드러내 보이고 있다. 누가 어디에 얼마나 땅이 있고 또 그 땅이 얼마나 올랐는지를 쉽게 알 수 있는 제주의 친목사회에서 빈부 차이의 등장은 함차 제주사회에 내재하여 있었던 '상대적 평등화'의 심리적 안정을 크게 훼손시켜 나갈 전망이다.

다른 하나는, '준비되지 않은 장수는 불행'일 수 있다는 데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른바 노후준비이다. 지금까지 노후준비는 개인의 몫으로 치부해 왔지만, 이제는 사회적 몫으로 바뀔 때가 되었다. 꼭 정부에게만 넘길 사안이 아니라는 얘기이다. 제주도정을 넘어서서 제주도 친목 사회의 내적 활력이 노후준비에도 서로 도움을 주고받도록 다양한 장치를 하나씩 마련해 나갈 때가 되었다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제주도 내 다양한 모임이 경조사를 공지하고 거기에 상부상조로 가 보는 걸 제일의 규범으로 삼고 있다.

문제는 딱 거기까지이다. 여전히 판막이다. 회비 낸 회원들 간의 상부상조에 한정되어 있다. 각종 모임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비회원들에 대해서 가끔씩은 심시일반으로 '작지만 큰' 도움이나 기부를 하는 건 아직 많지 않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제주 친목사회가 기존의 울타리 치기의 한계를 넘어서서 통 크게 틀과 운영을 바꾸어 나갈 때가 되었다. 앞으로 크고 작은 복지사업 모임이 많이 생겨 각종 친목회들이 서로 손잡고 매칭으로 세상을 돌아보기 시작하면, 승수효과가 지역사회에 넘쳐 장수를 찾는 사람들이 제주로 열 지어 찾아 들어오리라 본다. 평화의 섬 제주가 '나와 작은 우리'만이 아닌 '큰 우리의 공동체'가 되고, 그 결과는 지속가능한 장수의 섬으로 되리라는 전망이다. '오래 살고 싶으면 제주로'가 자연 풍광에 이은 두 번째 제주의 매력기길 기대해 본다.



양길현  
제주대학교 교수

## 기고

### 사과의 힘



김현경  
주민자치위원회 기획분과위원

'어린 자녀와 함께 대형마트를 가 본 부모라면 장난감 코너에서 곤란을 겪어 본 적이 한 번쯤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부모들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자녀를 훈육하는데, 권위주의적인 부모는 혼내면서 아이를 끌고 간다. 허용적인 부모는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하며 주위의 눈치를 살피느라 바쁘다. 방임적인 부모는 아이가 떼를 쓰면 말던 그대로 두고 가버린다. 민주적인 부모는 아이가 사리분별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부모교육 준비를 하는데 옆에서 듣고 있던 당시 8살이던 아들이 '엄마는 엄격하기만 한 부모네.'라고 말을 해서 순간 너무 당황했었다. 왜냐고 물었더니 5살 때 자기가 장난감을 사 달라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하면서 끌고 갔단다. 나는 결단코 그런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들은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나보다.

아들에게 '늦었지만, 이제라도 엄마가 너에게 진심으로 사과할게. 그렇게 속상해 한 줄 엄마가 미처 몰랐어. 엄마를 용서해 줄 수 있어?' 아들은 정말 아무렇지 않고 편하게 '응.'했다. '그때 엄마는 그렇게 하는 게 너를 잘 키우는 건 줄 알았어.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다는 걸 배웠고 배운대로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어. 그리고 엄마처럼 잘 키우고 싶는데 방법을 모르거나, 혹은 방법을 찾고 있는 다른 엄마들에게 엄마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이 교육이 엄마는 너무 좋아.'라고 말했다.

지금 20살이 된 아들과 나는 소소한 대화를 많이 한다. 만약 그때, '어머, 애 봐. 엄마가 언제? 어디서?'라고 했다면, 그런 소소한 일들이 반복 되어서 아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면 지금 나와 아들은 어떤 모습일까. 설사 그것들이 왜곡된 기억이든 거짓기억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아들은 엄마에게 섭섭함이 남아있었다는 것이고, 다행히 엄마의 사과를 통해서 마음이 풀렸다는 것이다. 사과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하는 것이다. 부모가 했다면, 마땅히 부모가 해야 한다. 이것 역시 교육이다.



# 탐방

#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는 해당 마을의 지역과 주민을 대표하는 기구로서 전국적으로 2994개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는 43개 위원회(제주시26, 서귀포시17)로 조직되어 있고, 2020년 새해 첫 법안으로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주민자치회법; 법안 제100호, 지역과 주민을 대표, 자율성 보장, 주민총회 개최, 수익사업 보장)이 국회에 제출되어, 관치에서 실질적인 풀뿌리 민주주의와 주민자치의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제주도는 2006. 07. 01 행정체제 개편으로 기초자치단체가 없어져 주민의 민원이나 지역의 개선사항에 대하여 건의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졌기 때문에, 실질적인 주민의 대표자와 행정기관의 협력자로 주민자치위원의 역할이 타 지역에 비해 상당히 높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주민자치센터의 설치·운영 등)에서 주민자치위원



의 활동을 보장하고 있고, 이 법에 의거하여 2008. 01. 09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조례중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주요 기능을 명시하고 있으며, 다음은 그 내용 중 일부이다.

제15조(설치) 읍·면·동의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역 내 중요사항을 심의

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6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읍·면·동장에게 그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1. 읍·면·동 지역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2.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이해 조정
  4. 환경영향평가 등 의견제출
  5. 각종 개발사업계획의 의견청취 및 의견제출
  6. 주요사업 예산 제안 및 건의의견 제출
  7. 지역단위 읍부즈맨 역할 부여
  8. 교통안전시설 설치 의견제출
  - 8의2. 시민교육 계획 수립 및 추진
  9. 그밖에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위원회가 협의 또는 결정하도록 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 ③ 위원회는 제22조에 따라 정기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제5조의 기능 수행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고 토론 후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일도2동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김두경

## 2020 상반기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요강

### ◆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개요 ◆

- 접수기간: 2020. 4. 20.(월) ~ 4. 27.(월) 09:00~18:00 ※ 단, 토·일요일 제외
- 운영기간: 2020. 5. 4. ~ 8. 14. (4개월) \* 임시청사 이전기간 휴강
- 접수방법: 일도2동주민센터 직접 방문접수(전화접수 불가)
- 모집인원 초과시 일도2동 주민 우선 선정, 1인 2강좌 신청 원칙(모집 인원 초과 시 공개 추첨) 단, 유사강좌(요가, 필라테스/댄스스포츠, 라인댄스) 중복수강불가
- 모집인원의 70%이하인 경우는 미개설, 재료비는 본인 부담 원칙 ※ 출석 50%미만일 경우 하반기 접수 불가
- 모집인원 초과 추첨일: 2020. 04. 29.(수) 16:00 주민자치센터 2층 회의실 ※ 추첨: 1순위)일도2동주민, 2순위)타동주민
- 개강식: 2020. 5. 4.(월) 10:00 주민센터 2층 회의실
- 접수장소: 일도2동주민센터 2층 소회의실(728-4442)
- 모집방법: 일도2동주민센터 직접 방문접수(전화접수 불가)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이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코로나19 변화 추이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문의전화(일도2동주민센터, 064-728-4442)

연번	프로그램	대상	장소	요일별	시간	모집인원	비고
1	당구교실	시민	이벤트당구클럽	월, 화	11:00 ~ 12:00	10	
2	스마트폰활용	시민	주민센터소회의실	화	10:00 ~ 12:00	15	안드로이드폰(삼성, LG)
3	요가교실	시민	주민센터문화관람실	화	13:00 ~ 14:00	30	
4	어린이 문화교실(오카리나)	초등학생	제일지역아동센터	화	18:00 ~ 20:00	20	야간
5	신명나는 물교실	시민	주민센터문화관람실	화	10:00 ~ 12:00	20	
6	난타교실	시민	울소리난타	화, 목	10:00 ~ 11:00	15	
7	탁구교실	시민	탁공탁구장	화, 목	11:00 ~ 12:00	15	사용료 부담
8	댄스스포츠	시민	제주영락사회복지관	화, 금	15:30 ~ 16:30	30	
9	필라테스	시민	주민센터문화관람실	수	10:00 ~ 12:00	30	
10	분재교실	시민	봉개동 으뜸분재원	수	13:30 ~ 15:30	15	상반기 수강자연중
11	라인댄스	시민	제주영락사회복지관	목	15:00 ~ 17:00	35	
12	오카리나	시민	주민센터문화관람실	목	13:00 ~ 15:00	30	개인 지참
13	캘리그래피	시민	주민센터소회의실	목	13:00 ~ 15:00	20	
14	행복 노래교실	시민	주민센터문화관람실	금	10:00 ~ 12:00	50	
15	퀼트	시민	주민센터소회의실	금	13:00 ~ 15:00	15	
16	생활체육(게이트볼)	어르신대상	신산 공원 내	토	09:00 ~ 11:00	15	주말

※ 프로그램 및 수강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제주의 역사 · 문화유적을 찾아서...

**동성(東城) · 돌하르방 · 신선길(Ⅲ)****4. 제주성지와 동성의 역사를 찾아서**

신증동국여지승람 등 여러 기록에 의하면 삼성혈에서 용출한 고을라 · 양을라 · 부을라 3신인은 활을 쏘아 숲의 터를 잡았는데(이를 사시복지射矢卜地라 함), 만이 올라가 살았던 곳을 1도라 하고, 둘째 올라가 산 곳은 2도라 하고, 막내 올라가 산 곳을 3도라 하였다. 1609년(광해임금 원년) 성안 마을을 세 동네로 나눠 일도리, 이도리, 삼도리라 했다. 그리고 제주목을 중면 · 좌면 · 우면으로 나누고, 외곽 지역은 지명에 따라 최초로 리 · 동 단위의 분할이 시행되었다.

**1) 주성(州城)인 제주읍성**

동성이 세워지기 훨씬 오래전부터 주성인 제주성지는 남수각을 자연해자로 하여 구축되어 있었다.

현재 우리가 오가며 자주 보는 성담은 제주목의 치소(治所)를 둘러싸는 제주성지 중 일부이고 이마저도 복원된 것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성의 규모는 둘레 4,394자, 높이 11자로 기록되어 있으나, 여러 차례 증축과

퇴축이 있는 후의 둘레는 6,120자, 높이가 13자로 불어나 더욱 높고 견고해졌던 것으로 보인다. 증축과 퇴축이 이루어진 이유는 성안에 물이 없어 백성들의 고통이 많았고 가락천과 산지천이 자주 범람했기 때문이다. 특히 1565년(명종 20년)에는 관측 목사가 성을 산지천 밖으로 물려 쌓았고, 1599년(선조 32년)에는 목사 성윤문이 성을 5자 더 늘려 쌓고 각 성문 위에 망루를 세우는 한편, 남북의 두 수구에는 무지개다리인 홍예(虹霓) 모양으로 남수각과 북수각을 설치하였다. 또 성 남쪽에는 제이각을 세웠으며, 성 위에는 적대(敵臺)와 포루(砲樓)를 설치하였다. 1652년(효종 3년) 8월 큰 비바람으로 남북 두 수구가 무너지자, 이원진 목사가 겨울에 공사를 시작하여 이듬해 봄에 완성했다. 북수구 위에는 정자를 세워서 공신루(拱辰樓)라 하였다. 그러나 큰 비가 내릴 때마다 산지천이 범람하여 민가가 침수되므로 1780년(정조 4년) 김영원 목사가 물난리를 피하고자 옛 성터를 따라 길이 551보, 높이 9자의 간성(間城)을 쌓았다. 이 간성에는 남북에 두 개의 문을 개설, 남문을 소민문(蘇民門), 북문을 수복문(受福門)이라 하였다. 1847년(헌종 13년) 봄에는 이의식 목사가 북수구에 성을 쌓아 천일정(天一亭)을 세웠고 또 간성도 더 쌓았는데, 이 때 수복문을 중인문(重仁門)으로 개칭하였다.

제주성지 주변에는 탐라국과 제주목의 주요 유적들이 즐비한 곳이다. 특히 이곳에는 오늘날의 학교에 해당하는 향교와 서원이 세워져 있었다. 향교와 서원은 인재 양성과 유교 이념을 보급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당시에는 토호세력들의 정치사회적 활동을 보장해 주던 근거지이기도 했다. 오현단이 있는 이곳은 1907년 사립의신학교



오현단



굴림서원

(지금의 제주제일중학교와 제주고등학교의 전신)가 문을 연 곳이며, 해방 후 오현중 · 고등학교가 개교한 곳이기도 하다. 1392년 향교가 처음으로 세워진 곳도 지금의 제주은행 본점이 있는 곳이고, 유림이 불 책을 출판하고 보 관했던 책판고 터와 함께 복원된 굴림서원도 이곳 주변에 있었다. (계속)

**방콕의 시간을 독서로!** 김두경**THAAD(싸드)****(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국의 입장은 어렵지만 하다. 경제의 현재와 미래를 중국에 걸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싸드를 받아 중국과의 불화를 초래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지만, 그렇다

고 국가방위를 미국과 같이하고 있는 입장에서 미국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을지, 아니 거절하는 게 옳은지..... 그야말로 어려운 문제다.

받으면 중국을 알고 안 받으면 미국을 알을 가능성이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선택은 과연 어떠한지 하는지를 나는 독자들과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다.’

작가의 말처럼 강대국 사이에 끼인 약소국의 외교(外交)는 항상 어렵다.

외교안보연구원 앞에 서 계시다는, 우리나라 외교의 표상(表象)이신 고려시대 서희(徐熙)장군님 이시라면 어떻게 대처 했을까?

나는 인문, 철학 서적보다 추리, 무협소설

을 좋아한다.

오랜만에 방콕을 하다가 작가의 소설을 발견하고 이를 만에 다 읽어 버렸다.

순간순간 무렵지처럼 막다른 일들이 술술 풀려서 손쉽게 책장을 넘겼지만, 마지막 엔딩의 아쉬움과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한 아픔은 독자의 몫일 것이다.

미국의 MD(Missile Defense)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THAAD가, 자국의 재정위기를 탈피하기 위한 미국의 선택이, 2014년 완성된 작가의 픽션(Faction)이 2016년 한국의 현실이 되어 버리고, 중국의 북수에 희생되는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한 서글픔이 가슴을 아프게 한다.

미국의 팍스아메리카나(Pax Americana : 강한 미국-미국이 주도하는 세계평화)와 이에 대항하는 중국의 도광양희(韬光養晦) 유소작위(有所作為) 일대일로(一帶一路)의 틈새를 우리는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할까?

**우린 너무 몰랐다.****해방, 제주4·3과 여순민중학쟁**

도을 김용욱교수는 한문학 교수이고 옛날의 훈장(訓長)스타 일어서서, 가끔 TV에서 봤지만 강의도 어렵고 목소리가 너무

매에 안 들어 별로 좋아하지를 못했다.

“우린 너무 몰랐다”를 읽고 조금 미진함이 있어서, 제주KBS와 여수MBC에서 선생에게 의뢰한 제주4·3과 여순항쟁에 관한 TV강의를 유튜브를 뒤져서 며칠을 들었다.

동서양을 넘나 드는 선생의 해박함과 종교에 대한 새로운 해석 등을 들으면서, 나는 나의 알팍한 지식과 어설픈 선입관을 후회했다.

제주도의 4·3보고서는 너무 딱딱하여 끝까지 읽기가 어려웠고, 도을 선생의 책은 행간을 긋고 빨간 볼펜으로 밑선

을 그으면서 년대와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면서 읽었지만, 대한민국의 근대사를 하나의 줄로 꿰기는 너무 어렵다.

몇 번에 걸쳐 읽어야 할 내용이지만 제주사람이라면 꼭 한번 읽기를 권한다.

단 25일의 해방과 해방후 3년이나 우리의 중앙청에 태극기를 걸지 못한 이유를 알아야하고, 왜 제주4·3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고찰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단지 1948년 4월 3일 어쩌다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그 시절의 제주도의 상황과 해방정국, 임정, 한민당, 이승만 등등의 인물과 국제정세에 대하여 생각을 해야 하고, 그 시대상을 되짚어 보아야 제주4·3이나 여순항쟁의 이유를 알 것이고, 제주4·3이 폭동이나 사태가 아니라 우리의 최소한의 요구였음을 알 것이다.

두 번을 읽어도 머리가 아프니 모두는 작정을 하고 읽기를 권한다.





## 관내초등학교

(일도초등학교 / 인화초등학교 / 동광초등학교)


### 학생 온라인 학습 모바일 데이터 일부 무료 지원 안내



#### < 온라인 학습 데이터 무료 지원 사이트(앱 포함) >


디지털교과서, e학습터, 사이언스올(과학교육), 엔트리(SW교육), 커리어넷(진로지원)

- ▶ 지원 대상: 모든 초중고교생
- ▶ 지원 내용: 디지털교과서, e학습터, 사이언스올 등 다양한 사이트(앱 포함)를 데이터 (요금) 걱정 없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유의 사항: 단, 위의 웹/앱 이용에만 해당되며, 위의 웹/앱에서 유튜브 등 다른 사이트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음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지원 기간: ~5월 31일까지 무료
- ▶ 신청 방법: X (신청 없이 바로 이용 가능)



## 상 생(相生)


김 용 덕  
시인



동백이 흐트러 지네  
이데올로기 잡초는 오름 등반을

푸르른 들판 붉게 물들이고  
대나무 잎새 울음만이 바람 꽃으로


동백새 이 꽃 저 꽃 옮겨 다니며 숨바꼭질  
마당에 동백꽃 하얀 눈, 사월이라



**건 / 강 / 상 / 식**  
 김동근/주민자치위원

## 쥐났을 때 '야옹' 말고... 가장 확실한 대처법은?

종아리나 발 등에 갑자기 경련이 나는 경험을 한 번쯤 해본다. 흔히 '쥐가 낫다'고 표현하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



근육경련은 무리하게 근육을 썼을 때 주로 생긴다. 특히 평소 잘 쓰지 않던 근육을 썼을 때 나타난다. 명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근육 자체보다 근육을 지배하는 신경이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되기 때문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가만히 있어도 근육경련이 생기는 이유는 특정 질환이 있거나 전해질이 부족한 탓일 확률이 크다. 급성 콩팥병이나 심장질환, 뇌 질환이 있으면 근육경련이 생길 수 있다. 이때는 손으로 근육을 스트레칭해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고 원인 질환을 치료해야 한다. 체내 나트륨이나 마그네슘이 부족한 것도 원인이 될 수 있다. 실제 과도한 운동으로 땀을 많이 흘려 나트륨이 손실되면 근육경련이 잘 생긴다. 마그네슘이 부족할 때는 다리나 발뿐 아니라 눈가 떨림이 잘 동반된다.

근육을 과도하게 사용해 근육경련이 생겼다면 뭉친 근육의 반대방향을 향해 천천히 늘이면 완화된다. 쥐가 나는 반대방향으로 근육을 움직여도 된다. 발바닥에 쥐가 났으면 바르게 앉아 발가락을 위로 퍼주는 식이다. 종아리에 쥐가 났다면 의자에 앉아 무릎을 펴고 다리를 들었다 내리는 동작을 반복한다. 쥐가 난 부위를 천천히 마사지하는 것도 좋다. 운동 전에는 충분한 준비운동으로 몸의 근육을 풀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한다. 자기 전에는 누워 팔다리를 위로 올린 뒤 덜덜 떠는 동작을 하면 다리에 쌓인 피로가 해소돼 경련 예방에 도움을 준다.

들꽃

사진 / 고재면  
주민자치위원



복수초



제비꽃



진달래꽃



벚꽃



백서향



노루귀



제주시 공식블로그

## 제주 소담(笑談)

제주하면 떠오르는 것은?

Jeju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제주 ♥ 笑談

- 윤상훈 -

제주하면 여러분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그렇습니다, 제주하면 떠오르는게 참 많죠?



하지만 제주가 제주인 것은.....

함께해요! 일도2동  
- 코로나19 -

## 기부 / 기증



일도2동지역주민 고지나(인화초 3학년), 강이숙님



수운교청정봉사단



인화로사회적 협동조합



일도2동방위협의회

## 방역활동



일도2동주민자치위원회



일도2동주민자치위원회



일도2동동장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일도2동위원회



일도2동새마을지도자협의회



일도2동지역자율방재단



# 기초질서 지키기는 우리 모두의 약속입니다.

환경질서, 교통질서, 도로질서 확립  
우리의 힘으로 나부터! 지금부터! 작은 것부터!

## 환경질서 T. 728-8021~2

올바른 분리배출하기, 쓰레기 불법투기 안하기, 일회용품 안쓰기

- ✓ 중점단속대상 :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미사용 및 혼합배출행위, 클린하우스 등 지정된 장소 이외에 생활쓰레기 배출행위, 공공장소에 담배꽂초 등 투기 행위
- ✓ 축제장, 장례식, 예식 등 행사장, 커피숍 등 1회용품 사용 안하기

## 교통질서 T. 728-8025

주변 주차장 이용, 걸어서 이동하기, 인도·횡단보도 위 주·정차 안하기

- ✓ 조금 불편하더라도 자동차는 주차장에 세우기, 걷기, 자전거타기, 대중교통 이용을 생활화합시다!
- ✓ 불법 주·정차 중점 단속지역 : 인도 및 횡단보도 위, 어린이·장애인 보호구역, 주정차 금지구역, 안전지대 등

## 도로질서 T. 728-4445

상가, 내집 앞 도로 위 물건 안두기

- ✓ 단속대상 : 집 앞 물통·페타이어, 상가 앞 노상 식탁·광고물



신생아 탄생 축하를 일도2동  
소식지에 실어드립니다.

아기와 부모에게 소중한 추억을 선물하기  
위하여 우리 동 지역 소식지인  
『함께해요~ 일도2동의 꿈』에 신생아 탄생  
축하코너를 마련하여 전 동민이 축하하고자 하니  
희망하시는 부모님께서 아래 동의서를  
작성바랍니다.

Jeyu 일도2동



2020년 2월 10일

박하담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하담아!

건강하게 태어나줘서 고마워.

엄마, 아빠, 언니랑

행복하게 지내자♥

2020년 2월 25일

강다을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너그럽고 인자하되

불의에 저항할줄 아는

그런 네가 되었으면 해!

신생아 탄생 축하를 일도2동

## 요일별·종류별

재활용품은 이렇게 배출해 주세요!

배출시간: 오후 3시 부터 다음날 새벽 4시 까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RFD)는 24시간 배출가능합니다.

<b>월</b> 플라스틱 (PET병 등)	<b>화</b> 종이, 불연성 (유리, 연탄재, 자갈류, 거울 등)	<b>수</b> 플라스틱 (PET병 등)	<b>목</b> 종이, 비닐 (라면 과자봉지 등)
<b>금</b> 플라스틱 (PET병 등)	<b>토</b> 종이, 불연성 (유리, 연탄재, 자갈류, 거울 등)	<b>일</b> 플라스틱, 비닐 (PET병 등) (라면 과자봉지 등)	<b>매일배출</b> 스티로폼, 병류, 캔, 고철류 원색종량제 쓰레기 봉투, 음식물 쓰레기 플라스틱 원수금일 종이류 화목토 비닐류 목일

가정내 음식물쓰레기는 반드시 전용 종량제에 배출해 주세요

(봉투 배출금지)

▶생선뼈, 닭뼈, 돼지뼈, 노란색종량제봉투, 감정봉투

▶청소용제, 기름, 페인트, 자갈, 거울, 유리, 연탄재, 자갈류, 거울 등

▶음식물쓰레기종량제(RFD)



투명 페트병

별도배출 시범사업

음료와 생수에 사용되었던 투명 페트병은 재활용도움센터 투명 페트병 전용수거함으로 배출해 주세요!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기, 라벨은 잘 제거하기, 피그리프리고 파~악 뚜껑 닫기





제72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대폭 축소되어 봉행됩니다

올해 4월 3일 평화공원 방문은 자제하시고  
'온라인 추모관'에 헌화와  
추모의 글을 남겨주세요!

헌화 · 추모글남기기 도청 홈페이지 ▶ 4·3희생자 온라인추모 베너 클릭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수칙

### 감염병 예방 수칙



손바닥, 손톱 밑  
비누로 꼼꼼하게 손씻기!



기침할 땐  
옷소매로 가리기!



기침 등 호흡기증상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의료기관 방문 시 필수)



선별진료소\* (의료기관) 방문 시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알리기  
\*선별진료소 연락처: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확인,  
관할보건소 또는 지역번호+120, 1339 문의



감염병이 의심될 땐  
관할보건소 또는 1339,  
지역번호+120 상담

### 중국 여행 시 주의사항



동물 접촉 금지



현지 시장 및 의료기관 방문 자제



발열, 호흡기증상자(기침, 인후통 등)  
접촉 금지



· 기침시 마스크 착용  
·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



· 중국 여행 후 입국 시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 귀국 후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발생 시 관할보건소 또는 1339,  
지역번호+120 상담



2020.2.12

## 자가격리대상자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최대한 자가격리대상자와 접촉하지 않기

· 특히 노인, 임산부, 소아, 만성질환, 암 등 면역력이 저하된 분은 접촉 금지 · 외부인 방문 제한



불가피하게 자가격리대상자와 접촉할 경우  
마스크를 쓰고 서로 2m 이상 거리 두기



자가격리대상자와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자주 환기 시키기



물과 비누 또는 손세정제를 이용하여 손을 자주 씻기



자가격리대상자와 생활용품(식기, 물컵, 수건, 침구 등) 구분하여 사용하기

· 자가격리대상자의 의복 및 침구류 단독세탁  
· 자가격리대상자의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 다른사람 사용 금지



테이블 위, 문 손잡이, 욕실기구, 키보드, 침대 옆 테이블 등  
손길이 많이 닿는 곳의 표면 자주 닦기



자가격리대상자의 건강상태 주의 깊게 관찰하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주요 증상

✓ 발열(37.5°C 이상) ✓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 ✓ 폐렴